

2000년도 국방 요구 예산 案

미래전 대비 15조4천억원 편성

국방

부는 2000년 국방예산 규모를 올해 13조 7천4백90억원보다 12.1% 증가한 15조 4천 1백2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총예산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등 투자비는 6조1천5백2억원(39.9%), 운영비는 9조2천6백억원(60.1%)로 책정했다.

'00년도 예산편성 중점 내용을 살펴보면 현존 전력의 극대화를 위한 전력개선 계속사업의 정상추진 지원 및 미래전 대비 핵심전력 체계기반 구축을 위해 연도별 투자비 점유 비율을 39.9%로 지난해에 비해 2% 향상시켰다. 이는 지난 '90년 이래 최고 수치이다.

또한 장병 사기복지 향상을 위해 병영시설, 군 숙소 확보, 급식·피복분야를 중점 반영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방 정보화 적극 추진 및 민원사항 조기 해소를 위해 전산통신망 등 기반체계 구축소요와 군 사용 사유지 정리 등 민원해소 소요를 최대한 반영했다.

군 구조의 효율화를 통한 인건비, 경상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급여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전역자, 명퇴자

증가에 따른 연금 증액소요를 반영한 반면 경상경비는 '9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방위력 개선사업이 포함된 투자비 사업은 지난해보다 17.6% 증액된 6조1천5백2억원으로 여기에는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에 5조6천4백9억원이, KF-16 추가생산(20대) 및 고등훈련기 연구개발 사업의 정부 부담금(20%) 등 국가정책사업에 5천9십3억원이 편성되었다.

편성중점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00km 방위권내 전략정보(신호/영상) 수집능력 확보 및 전술적 전장 감시능력 적극 보강
- 백두사업:'96~'01, 총 3,000억원
- 금강사업:'96~'01, 총 3,000억원
- *전략목표 타격 및 입체고속 기동전력 향상, 해상 및 공중 우세권 확보 전력 조기 추진
- MLRS/ATACMS :'97~'06, 총 17,000억원
- 구축함(KDX-II) :'96~'05, 총 11,000억원
- 잠수함:'93~'08, 총 16,000억원
- 대형수송함:'99~'06, 총 4,000억원

연도별 투자비 점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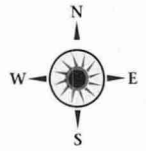
연 도	'90	'94	'97	'98	'99	'00 요구
비 율(%)	42.0	35.9	35.9	37.3	37.9	39.9

'00년도 요구예산 규모

(억원)

구 분	'99 예산		'00 예산		증 가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가액	증가율
국 방 비	13조 7,490	100.0	15조 4,102	100.0	1조 6,612	12.1
투 자 비	5조 2,304	38.0	6조 1,502	39.9	9,198	17.6
운 영 비	8조 5,186	62.0	9조 2,600	60.1	7,414	8.7
-인 력 운영	5조 298	36.6	5조 3,470	34.7	3,172	6.3
-기 타	3조 4,888	25.4	3조 9,130	25.4	4,242	12.2

* 투자비는 KTX-II 연구개발비, KF-16 추가생산 등 정책소요 발생으로 17.6% 증액



연도별 국방비 요구 대 확정

(%)

구분		'96	'97	'98	'99	'00
국방비	요구	12.5	16.7	12.5	9.5	12.1
	확정	10.6	12.6	0.1	△0.4	
•투자비	요구	9.5	20.2	18.6	12.4	17.6
	확정	7.4	14.5	4.2	2.8	
•운영비	요구	14.2	14.9	9.2	7.8	8.7
	확정	12.3	11.6	△2.2	△2.2	

- KF-16 추가생산: '00~'05, 총 12,000억원
- 차기 유도무기(SAM-X): '00~'09, 총 20,000억원
- 중거리 공대지 유도무기(AGM-142): '99~'03, 총 2,000억원
- *현존 전력 발휘 극대화를 위한 능력 보강 및 방공능력 향상
- 단거리 대공 유도무기(천마): '98~'13, 총 29,000억원
- K-1 성능개량 전차: '99~'08, 총 10,000억원
- 신형자주포: '98~'07, 총 15,000억원
- 지상직전 사령부 창설: '00, 총 20억원
- 상륙돌격장갑차: '96~'08, 총 5,000억원
- 함대함 미사일: '96~'01, 총 400억원
- KT-1 생산: '99~'04, 총 8,000억원
- *전쟁지속 능력 향상을 위한 군수지원 및 전자전/화생방 상황에서 생존성 보장

- 전투기 전자전 장비: '00~'04, 총 700억원
- 화생방 정찰차: '96~'02, 총 2,000억원
- *미래전 대비 첨단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집중 개발
- 군 위성 통신체계(탐색개발): '96~'05, 총 1,600억원
- 항만 감시체계(체계개발): '00~'03, 총 300억원
- 무인정찰기(체계개발): '89~'00, 총 400억원
- '00년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지상전력분야에 MLRS/ATACMS, 단거리 대공 유도무기(천마), K-1 성능개량 전차, 신형자주포, 지상작전 사령부 창설 등이 포함된다.
- 해상전력분야에 구축함사업, 잠수함사업, 상륙돌격장갑차, 함대함 미사일 등이, 공중전력분야에 KF-16 추가생산, KTX-II 연구개발, 차기 유도무기(SAM-X), KT-1 생산, 중거리 공대지 유도무기(AGM-142) 등이, 연구개발분야에 무인정찰기, 군위성 통신체계, 전방관측 적외선장비, 전투기 전자전장비, 항만 감시체계 등이 포함됐다.

고등훈련기(KTX-II) 사업 후보 기종



해군, 함대공 유도탄 시험 발사 성공

해군 함정의 대공 공격 능력에 자신감 고취



해군 은 지난 5월 28일 서해상, 광개토대왕함에
서 국내 최초로 함대공 미사일 1발을 발사
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군이 이날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미국 레이시온
(RAYTHEON)사에서 제작한 360센티, 232킬로그램의 크기
로 최고 20여 킬로미터 사정거리를 마하 약 1.3의 속도로
비행하여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RIM-7P로 우리 해군
함정에 대유도탄 및 항공 공격용으로 탑재되어 있다.

이번 시험발사는 해군이 최초로 확보하여 함정에 탑재
한 함대공 유도탄에 대한 운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
되었으며, 기동중인 광개토대왕함(발사함)이 약 5000피트
(약 1500미터) 상공의 무인 표적기(MQM-107B)에 약 8000
피트(약 2400미터) 후방에 TRX-4A 표적을 매달고 시속 약
350노트(약 630킬로미터)의 속도로 공격 비행하는 것을 단
번에 명중, 격추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시험발사한 미사일에 장착된 원격계측 송신장치
(TELEMETER)에 표적 근접거리가 표시되어 이를 통해 명
중 여부를 식별토록 되어 있으나, 이날 광개토대왕함이 발
사한 유도탄은 표적을 바로 명중시킨 것으로 감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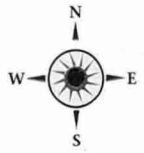
RIM-7P 유도탄
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17개국

에서 운용중인 함대공 유도탄이며, 우리 해군은 구축함
(KDX-I)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대공 유도탄 탑재계획에 따
라 우리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정하여 도입하게 된
최신형 단거리 유도탄이다.

해군은 이번 시험발사로 인하여 해군의 대공(對空)전투
능력을 입증하여 해상전에서의 자신감을 함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는 한편, 북한 항공기의 대함공격 전술 및 교
리의 변경을 강요할 수 있는 여러 측면의 부수효과도 보
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상에서 항공기가 공대함 유도탄으로 공격해 올
경우를 대비하여 중·장거리 대유도탄 미사일 확보 또한
추진중에 있어 해상전에서의 대공 공격 및 방어능력이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군은 이와 같은 준비태세를 확고히 마련하여 영해와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차기 전투기(F-X)사업 공개 설명회 가져

F-15K, EF-2000, Rafale, SU-35 등 4기종 참가

국방 부는 6월 8일 국방회관에서 차기 전투기(F-X) 대상기종으로 선정된 미국 Boeing사(F-15K), 스페인 CASA사(EF-2000), 프랑스 Dassault사(Rafale), 러시아 Rosvoorouzhnie사(SU-35) 등 4개 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공개 설명회는 「시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대상업체에게 「제안 요구서(RFP)」를 배부하고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는 절차로서, 국방부는 국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무기체계 획득계획 공고」를 통하여 희망업체로부터 「예비 제안서」를 제출 받아 대상장비를 선정하고, 공개 설명회를 실시한 후 지정된 기일에 접수하는 「제안서」를 근거로 시험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국방부는 차기 전투기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97년 말 「무기체계 획득계획 공고」를 통하여 전 세계 관련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앞의 4개 기종이 시험평가 대상 기종으로 선정되어 지난 5월 20일 업체에 공식 통보하였고, 이번에 공개 설명회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국방부는 대상업체로부터 올해 9월초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내년 상반기중 국내 및 국외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기종별 「전투용 사용 가·부」를 판단하고, 가격 및 기술이전에 관한 「협상」 등 전력회를 위한 선행조치 업무를 추진하고, '01년 6월경 기종을 결정하며, 같은 해 10월 집행을 승인할 계획이다.

미국의 F-15 이글



프랑스의 라팔



유럽 4개국이 만든 유러파이터



러시아의 수호이 35 플랭크



국산 8호 잠수함 나대용함 진수

순수 국산 특수강관(HY-80) 사용

해군 에 인도될 국산잠수함 나대용(羅大用)함(8호) 진수식이 6월 9일 옥포조선소에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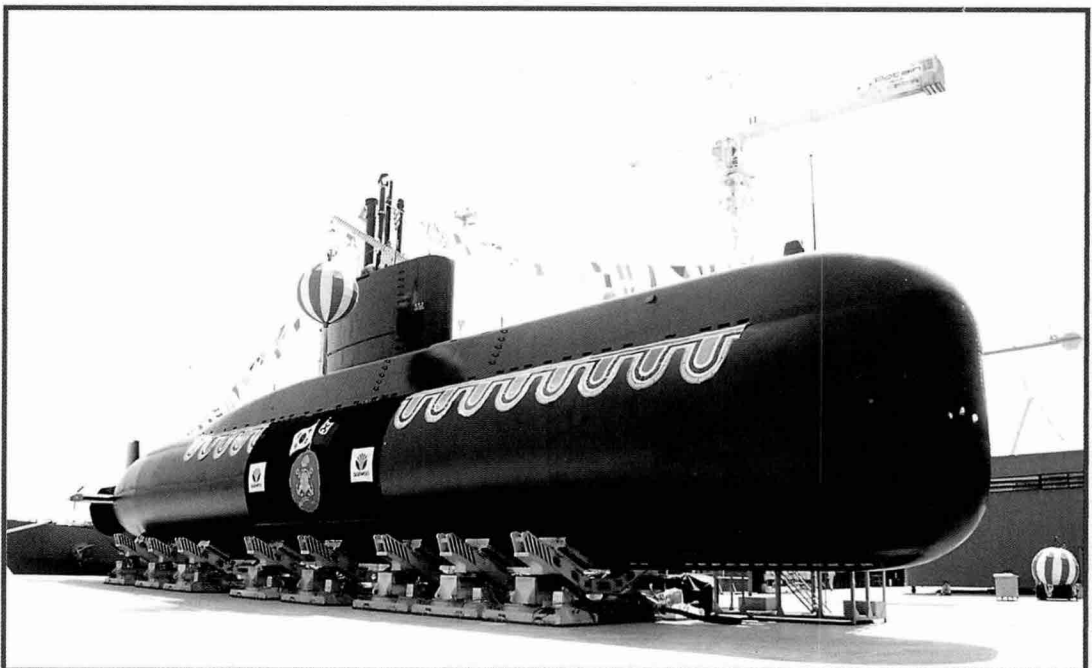
이날 나대용함 진수식에는 趙成台 국방부장관, 李秀勇 해군 참모총장 등 군 고위관계자와 申英均 대우중공업사장과 조선소 관계자, 그리고 나대용 직계종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 전통의식에 따라 국방부장관 부인(李榮淑 여사)이 진수 테이프를 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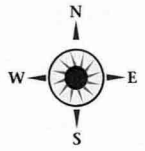
대우중공업(주) 옥포조선소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나대용함은 1천2백톤급 디젤잠수함으로 수중 최대속력은 시속 22KTS(44km), 승조원은 약 40명이고 무장으로

는 어뢰와 기뢰 등을 장착했으며, 2개월간의 단독작전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진수된 나대용함은 지난해 건조된 李純信함과 함께 순수 국산 특수강관(HY-80)을 사용하였다.

전통적으로 해군은 함정명을 제정할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역사적인 인물의 인명을 선정하여 명명하고 있는데, 이번에 명명된 나대용(1556~1612)은 충무공이 대단히 신임했던 장수였으며 임란전 거북선 제작 책임자로서 거북선 진수 발조실함에 성공, 임란당시에는 유군장으로 거북선을 앞세우고 해전에 참전하여 승전고를 올리는데 일등공을 세웠다.





서해상 남북 함정간 교전 발발

북한 어뢰정 1척 침몰, 5척 파손, 100여명 사상자 발생 추정



6월 15일 벌어진 서해 교전중 우리 해군 고속정(왼쪽)이 북한 경비정의 후미를 들이 받고 있는 모습

20분에 밀어내기식 작전을 수행했다. 충돌공격을 받은 북한 경비정은 갑자기 25mm 기관포 공격을 감행했으며 북한 어뢰정 3척도 공격에 가담했다. 해군은 초계함의 76mm 함포와 고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태이후 처음으로 6월 15일 남북 해군 함정간에 기관포를 동원한 교전이 발발, 서해상에 전운이 감돌았다. 군당국은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지역에 대해 평소 경계태세 보다 한단계 높은 데프콘 3에 준하는 전투대비령과 정보감시태세인 위치콘 2를 발령했다.

함참은 15일 「오전 9시 25분께 북방한계선(NLL) 남측 2km, 연평도 서쪽 10km에서 영해를 침범하는 북한 경비정을 우리 고속정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북어뢰정 1척이 침몰했으며 중형경비정 1척 등 다른 경비정 3척도 크게 파손된채 퇴각했다. 우리 고속정과 초계함 등 2척도 일부 파손됐으며 장병 9명이 부상당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후송됐다.

북한은 오전 7시 15분부터 꽃게잡이 어선 20척과 경비정 4척을 북방한계선 남쪽 2km 해역까지 내려보냈으며 해군은 고속정과 초계함 10여척을 동원, 오전 9시 7분과 9시

속정의 40mm 기관포 등으로 즉각 응사해 북한 어뢰정과 경비정을 명중시켰다. 어뢰정은 선체에 화재가 발생해 침몰했으며 반침몰 상태인 중형경비정은 다른 어뢰정과 경비정에 예인돼 북측으로 도주했다.

국방부는 특히 이번 교전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미간 긴급연락체계도 강화했다.

이번 교전에 참가한 우리 함정은 돌핀으로 불리는 PKM 고속정 8척과 포항급(1200톤급) 초계함 2척이고, 북한측 어뢰정은 신흥급(40톤), 대청급(420톤), 상해급(113톤)으로 함정 크기 및 화력에서 현격히 차이나 우리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서해 교전을 통해 우리 해군은 대북 대비 양적 열세를 장비의 성능과 화력, 지휘통제체계, 작전 능력 등이 우위에 있어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